

간추린 소식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도로설계지침 마련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하 PM)가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예고를 거쳐 10.19(목)부터 시행하였다.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 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하였다. 둘째,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하였다. 셋째,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

▶ 차로와 PM통행로의 물리적 분리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10.19)

용어해설



강소도시권

강소(强小)도시권이란 인구수는 적지만 주민 생활서비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권역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의 중심지 기능을 하며, 다양한 주거지 경관을 갖는 국토·지역의 기초공간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유럽도시현장(라이프치히 현장, 2007.5.24)에 따르면, 중·소도시권은 국토공간적 연결성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의 국토공간계획에서는 중심-지역-원칙(Das zentrale-Orte-Prinzip) 하에 전 국민에게 물류, 일자리, 서비스시설을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위계의 중심지를 설정하고 각 중심지는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중심지가 된다. 강소도시권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댐기능,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기능, 국토의 자연환경·역사문화 및 공동체 관리 기능을 한다.

김선희 외(2018)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강소도시권 육성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그 유형으로 혁신도시와 주변 중소도시를 연계하여 효과를 확산시키는 스마트 혁신도시 연계형, 농촌·산촌·어촌 지역거점에 베이비부머의 귀촌 정주거점을 조성하는 귀농(산, 어)귀촌 지원형, 쇠퇴한 산업 지역 및 방치된 섬, 동계올림픽 사후시설 등을 관광과 휴양을 위해 재생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관광·휴양형 등을 제안하였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김선희 외, 2018, 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을 위한 강소도시권 육성 방향,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제648호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로정책Brief의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도로정책Brief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정책Brief 원고를 모집합니다.

도로 및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칼럼, 소식, 국내외 동향에 대한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하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원고투고 및 주소변경 문의 : 044-960-0269

-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심교언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 전화 | 044-960-0269 • 홈페이지 | www.krihs.re.kr

※ 도로정책Brief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